

월요논단



김 동 운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코로나19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 활동을 자제한 채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많은 검사를 해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또한 조속히 이겨내리라는 확신이 든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제주 관광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제주 방문 관광객은 61만4576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9373명에 견주어 44.6%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제주도관광협회 자료).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 편수도

기어이 애물단지를 꺼안고 싶은가

사상 최대 규모로 감소되었다. 제주도 내 확진자 발생 전후 일주일(2.17~23)과 지난해 같은 기간 제주공항 항공편을 비교한 결과 하루 평균 465편에서 360편으로 100대 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제주의 소리’ 보도). 이와 함께 제주의 현실을 무겁게 바라보아야 할 통계들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은 2017년 이후 계속 1000호를 넘고 있다. 건물을 짓기도 전에 분양이 끝나던 5~6년 전과는 판이한 상황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제주 순유입 인구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제주도 전 입인구는 8627명, 전출인구는 8651명으로 24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는 데, 이처럼 제주도 순유입 인구가 마이너스가 된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이러한 수치들은 제주의 미래를 어는 정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상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제주 인구는 그다지 늘지 않고 현재의 70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물론 땅값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집값은 점차 떨어져갈 것이다. 그렇다면 관광은? 물론 코로나19의 여파로 비행기가 대폭 줄어들고 관광객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은 돌발 상황이기에는, 머지않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평상 수준으로 회복되리라고 믿는다. 연 15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곧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제주 관광의 최적 수준인 것 같다. 최근의 제주를 둘러싼 여러 변화와 코로나19의 여파는 우리에게 더 이상 몸집을 늘리려는 시도는 그만 두어야 마땅하다는 교훈을 준다. 제

주의 인구나 관광객은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이 충분히 예측된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세계적인 전염병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관광 인프라를 늘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관광지로 거듭나는 데 진력해야 한다. 결국 제주에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말이다. 절대로 지어선 안 된다. 그것은 단기적인 건설경기 부양이나 고용창출 효과만 줄 수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괴물 같은 애물단지를 만들었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애물단지가 되거나면 어쩔 수 없이 군사공항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읍소할 작정인가?

사설

온도민이 함께 나서야 코로나19 이긴다

제주지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더 이상 늘지는 않았습니. 하지만 최근 제주도에 신천지 교인 중에서 수십명의 유증상자가 나오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같은 형국에서 제주지역 ‘민·관·군·경’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도청에서 ‘2020년 제주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갖고 민·관·군·경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이미 제주대학병원 등 선별진료소 7개소에서 이뤄지던 검체 채취를 보건소 6개소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17억여원을 투입해 학교별 긴급 방역 물품 확보에 들어갔습니. 경찰은 격리시설 부족사태에 대비해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경찰관서수련원을 비워줬습니. 특

히 코로나19 관련 소재 불명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신속대응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 코로나 사태로 제주지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습니. 제주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여전히 떨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때 도내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 누구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 따라서 온도민이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도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감염원 차단을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제주지역 마스크 구입 혼란 최소화 나서야

제주사회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잔뜩 긴장하는 가운데 필수 예방조치인 마스크의 구입대란까지 벌어져 도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습니다.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도 마스크 물량이 일찍 동이 나고 정부의 특별공급물량도 제한적인 상태에서 구입현장의 안내 부족 등의 이유로 큰 혼잡을 빚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로 국내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토록 했고, 도내 우체국은 당초 예정보다 사흘 빠른 지난달 28일 첫 판매에 나섰습니. 제주우정청은 이날 도내 읍면지역 18개 우체국에서 마스크 6300개를, 1인당 1세트(5장)씩 한정 판매했습니. 판매 첫날 현장은 각 우체국당 배정물량이 70세트로 제한되고 개시 한참 전부터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며 주민간 신경전이나 직원의 항의소동 등이 빚발쳤습니

다. 일부 우체국은 선착순이 아닌 편의차원에서 명단을 작성, 판매하려다 일찍 왔다 돌아간 사람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 특별공급 판매 첫날이라 예측 못한 사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사안의 엄중함으로 볼 때 사전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결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 다행히도 이번주부터 특별공급 마스크 판매가 우체국 외에 농협하나로마트, 약국에까지 확대됩니다. 제주지역 하루 배정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판매처 외에 판매물량도 차츰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판매현장 혼선 최소화가 가장 중요해졌습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구입은 남녀노소,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우체국이 농협 등은 구입활동 자체로 인성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혼란, 불편 등의 최소화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합니다.

열린마당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이 유 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4·15 총선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 처음으로 투표한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부터 전국적으로 14만여명, 제주지역만 1700여명이 ‘고3 학생 유권자’가 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만18세 고등학생의 선거운동 허용법위와 교사의 선거교육 방식을 두고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예상치 못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은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선거교육 지침을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고

3 학생은 2002년 4월 16일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태어난 학생이다. 선거일에 만18세인 학생은 투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이면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만18세가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18세 선거권 도입 이후 학생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라는 시각과 ‘교실의 정치화’라는 목소리가 혼선하고 있다. 만18세까지 선거권을 확대한 주된 취지는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높여라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젊은 세대의 주권의식을 강화하고 투표율을 높이면서도 학교 내 정치활동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교복 입은 유권자’의 선거활동에 대한 기준이 정리돼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청소년의 투표 참여로 더 다양한 연령에서 주권의식이 함양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道, 타 지역 병상 제공 “결정 사항 없다”

통화는 정부 수요 조사 일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타지역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제주의료원 등 도내 병상 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도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일축. 도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와 제주지역 병상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화한 바 있지만 이는 정부의 수요 조사의 일환일 뿐이라고 이튿날인 29일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부의 결정과정에서 항공편을 이용한 환자 이동 등 제주의 지역적 여건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 오은지기자

소상공인 감염 대상 발굴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주력. 시는 이를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염 서비스 미신청자를 발굴

해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접수. 한 관계자는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음식, 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감염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코로나19 극복 건의문 채택

○…제주항공을 포함한 국내 저비용항공사 6개 업체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이들은 “우리 LCC는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절체절명의 비랑 끝에 서 있다”며 “지금의 국가적 재난은 항공사만의 자구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 이에 대해 이들은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공항사용료 및 세금 전면 감면 조치 시행, 고용 유지 지원금 비율 한시적 인상이 시급하다”고 촉구. 백금탁기자

부 고

한태성 아버지 청주항공 규백(6·25참전용사, 향년 91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1일 15시 24분경에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3월 3일(화요일)
- ▶발인일시: 2020년 3월 4일(수요일) 오전 9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 ▶장 지: 김녕 입산봉 공동묘지

아 들 한태홍(敬) 머느리 최영미
태성 태완 사 위 홍희철
말 한복선 사 위 홍강성
지혜(복수) 부영주
길선(복수) 부영주
손 자 한상근 외손자 홍일남
재근 부영주
경근 부영주
손 너 한수민 부영주
친족대표 한창보 외손녀 홍다미
부영주 부영주
부영주 부영주

※ 연락처 : 한태성 010-2690-7135
한태완 010-3690-8813 홍희철 010-2506-9400
강성삼 010-3839-7120 부영주 010-5695-5349

감사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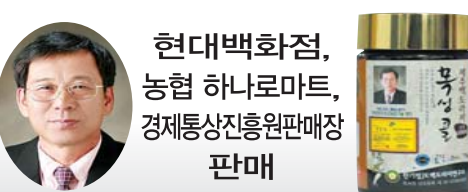
이번 저희 아버지 광산김공 평수(향년 9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3월 2일

아 들 김영대 태국 머느리 강정아
말 김연실 사 위 윤병순
능효 양용혁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A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당사에서 제조하는 펌백 피톤치드 추출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미국 FDA화장품 심사기준 합격 판정 되었음

펌백피톤치드 추출수는 인체에 무독성이며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집먼지진드기·곰팡이·황색포도상구균 등에 탁월한 살균·살충·항균·항충 작용은 물론 악취제거·세집중후균·스트레스 완화 시켜줌

제주편백우드(영)

T. 064-725-0622

제주시 보배길 32-16(제주대학교병원 남쪽) 벤처기업·편백피톤치드 추출 전문기업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